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접속 잘 안돼요”

서버 마비 빈발...기기·인터넷 환경 따라 천차만별 쌍방향 원격수업은 비교적 수월...수업격차 우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첫 학교 온라인 개학이 9일 중3·고3을 대상으로 본격 시작됐지만, 학교 현장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앞서 계속 지적됐던 온라인 플랫폼의 서버 문제와 학교마다 온라인 강의 콘텐츠 및 수업의 질 차이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개학이 강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대전의 한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미리 짜둔 시간표대로 온라인 개학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EBS 온라인 클래스 등 플랫폼이 마비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 학교는 실시간 원격 수업을 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모든 수업이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위두당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이뤄진 탓에 진땀을 흘려야 했

다. 오전 한때 마비됐던 서버는 10시 이후에나 점차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이마저도 스마트폰이 사당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접속이 아직 안 된다”, “동영상 상이 재생되지 않는다”는 등 학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앞서 서버 마비를 염두에 두고 지난 8일까지도 점검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문제가 계속된다면 접속이 풀리는 시간에는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를 위주로 수업하는 학교는 고민이 더 크다. 교육부가 1주일 이내로 수업을 들으면 문제가 없다는 방침을 세워 첫날부터 아예 접속하지 않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시간표를 세웠지만 온라인 수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

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중3 한 담임교사는 “어제 밤까지 점검했을 때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접속이 한꺼번에 몰려 잠시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차원에서 접속이나 수업 방법을 재차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고충을 털어냈다.

이어 “오늘만이라면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반복될 것으로 보여 개선이 시급하다”며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화상강의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봤다. 그러나 학생 가정은 물론 학교에도 여건을 갖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모두 온라인 콘텐츠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당국이 기기 보급에만 서둘러 안타깝다. 아직도 현장의 목소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반면 모든 수업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대전의 한 사립고는 비교적 원활하게 수업이 이뤄지는 모습

이었다.

이 학교는 3주 전부터 원격 수업을 위한 준비에 나선 탓에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쌍방향 화상강의는 학생들의 참여도 보다 적극적이었다. 교사가 마련한 수업 자료와 온라인 콘텐츠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 보였다.

다만 교실 수보다 교원 수가 많은 탓에 정해진 시간마다 장비와 장소를 옮겨야 해 교사들이 수업이 끝날 때마다 숨 가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 학생이 캠과 마이크를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어 수업에 집중하도록 독려하는 힘에 부치는 표정이었다.

이 학교 고3 담임은 “시행착오는 계속 겪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나마 유튜브에 수업 자료를 꾸준히 올리고 있어 익숙하지만 힘든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고3은 성숙한 아이들이라 그래도 잘 따라주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가장 늦게 고용, 가장 빨리 해고’ 고령노동자...벼랑끝 몰렸다

롯데마트가 올해 계약 기간이 종료된 만 55세 이상 계약직 실버사원을 모두 내보내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 밀어내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준수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장은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령 근로자의 경우 ‘Last hire, First fire’ (가장 늦게 고용하고 가장 먼저 해고한다)라는 말이 있다”며 “경영상의 이유는 있겠지만 큰 메이저 기업이 먼저 고령 근로자를 해고하기 시작하면 연쇄반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 3월31일 계약 기간이 종료된 만 55세

서 허드렛일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 노동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정규직 등 다른 취약계층도 일자리에 밀려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제보받은 3410건 중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직장 내 지휘 우위에 있는 자가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강요하는 ‘갑질’이 37.3%인 1219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비정규직도 많았지만 업종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갑질 비율이 높았다”며 “최근 몇

“코로나발 해고1순위 실버직원...연쇄반응 이어질 것”
“재취업도 어려워...노인용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를”

이상 계약직 실버사원 36명에 대해 퇴사 조치했다. 나머지 2명도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계약 없이 퇴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연장해 왔다.

문제는 고령 노동자의 경우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밀려나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허 원장은 “고령 근로자의 경우 젊은 세대보다 다른 직종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이렇게 해직을 당한 뒤에는 도움을 줄 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특히 외국의 경우 나이가 들어도 본인의 능력과 기술을 고려해 연장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 고령 근로자의 차별이 많아

년 데이터를 비교해 봐도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코로나19 특성상 항공업계나 관광업계, 서비스 업종 등 직접적인 산업이 큰 영향을 받았지만, 이러한 악영향이 산업 전반으로 퍼질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 원장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고용안정센터에서 고령 근로자들에 대해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 능력과 욕구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고, 실업 당한 고령 근로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보내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봉우 기자

고3·중3 원격수업 첫날 광주 출석률 98.81%...결석 340명

장휘국 교육감 “큰 문제없이 온라인 개학 이뤄져”



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무실에서 3학년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과 영상을 보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원격수업 첫날인 9일 광주지역 중·고교의 출석률은 98.81%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중·고교 출석률이

93%(중학교 93%, 고등학교 92.3%)였던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첫 날 출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9일 정

기 기준 광주지역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3학년생 총 2만8595명 중 2만8255명이 원격수업에 참여해 출석률은 98.81%였다. 결석생은 340명이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1만3769명의 전체 학생 중 1만3651명이 참여해 출석률은 99.14%였고, 결석 학생은 118명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1만4826명의 전체 학생 중 1만4604명이 참여해 출석률은 98.50%였고, 결석 학생은 222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는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e-학습터나 EBS 온라인클래스에 접속해 원격수업에 참여했다.

특히 학생들의 일시적인 접속으로 학내망 부하를 크게 우려했지만 네트워크 부하, 서버 접속 과중은 크지 않아 모든 중·고등학교

에서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사들은 e-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에 로그인하지 않은 학생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잠자고 있는 학생들을 깨워 온라인 등교를 하도록 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중학교 3년생과 고등학교 3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정보화 기기와 인터넷 통신을 지원했다”며 “각종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학습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담임교사들은 개학 연기로 생활리듬이 깨지기 않도록 학생과 통화하고, 단톡방을 만들어 소통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진행해 큰 문제없이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조인호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